

萬海詩碑의 建立추진

萬海詩碑의 建立추진에 關한 萬海詩碑 建立추진위원회 報告書 中의 重要部分을 摘錄한다.

萬海詩碑의 建立은 萬海詩碑 建立추진위원회 報告書 中의 重要部分을 摘錄한다. 萬海詩碑의 建立은 萬海詩碑 建立추진위원회 報告書 中의 重要部分을 摘錄한다.

萬海詩碑의 建立은 萬海詩碑 建立추진위원회 報告書 中의 重要部分을 摘錄한다. 萬海詩碑의 建立은 萬海詩碑 建立추진위원회 報告書 中의 重要部分을 摘錄한다.



許 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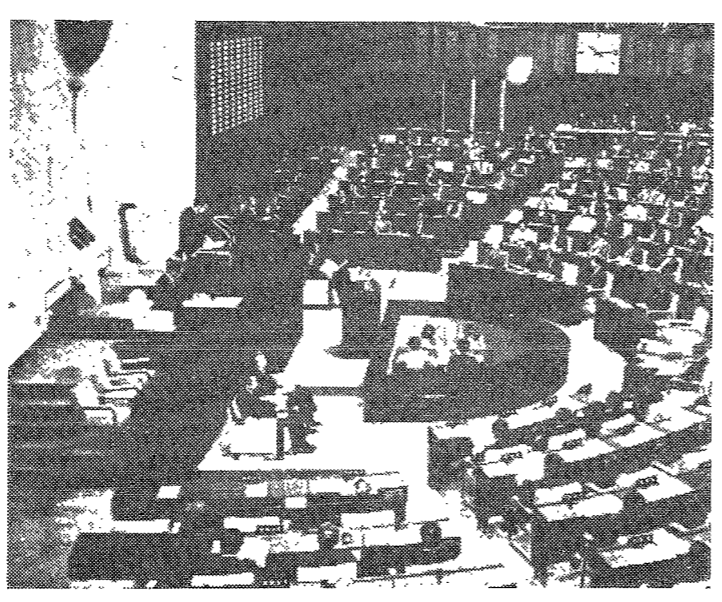
국민정치의식다른 정치세력은...

二元執政府制와 개헌논의

1. 二元執政府制의 意義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는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를 說明한다.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는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를 說明한다.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는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를 說明한다.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는 二元執政府制의 意義를 說明한다.



▲行政을 擴大되고 政治는 集中되어가는 二元執政府制의 現狀을 示한 國會의 會場

이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태

이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태에 關한 討論을 示한다. 이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태에 關한 討論을 示한다.

이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태에 關한 討論을 示한다. 이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태에 關한 討論을 示한다.

言論·出版·集會·結社 자유 보장돼야 대통령권한 강화체제 獨裁요소 내포 국민적 정당성 확보가 선결과제

言論·出版·集會·結社 자유 보장돼야 대통령권한 강화체제 獨裁요소 내포 국민적 정당성 확보가 선결과제

言論·出版·集會·結社 자유 보장돼야 대통령권한 강화체제 獨裁요소 내포 국민적 정당성 확보가 선결과제

購買慾求

購買慾求의 現狀을 說明한다. 購買慾求의 現狀을 說明한다.

購買慾求의 現狀을 說明한다. 購買慾求의 現狀을 說明한다.



洪榮伯

會計學 實力講座

개강 每月初·수강생·합격률 최고!!

부기 1·2·3급·고급회계·경제원리·稅法

회계원리·회계회계·회계원리·회계원리

중요 3가 (회계원리·회계원리·회계원리)

창립 3년 전

정평의 실력강화!! 대한경리학원

예비군교육소집통보

(86년 후반기사격훈련)

이러한 通보에 對하여 應對하는 方法을 說明한다.

이러한 通보에 對하여 應對하는 方法을 說明한다.

경주 젊은 지성인들의 만남의 공간

오늘 COFFEE SHOP 오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꽃볼라티

◇최신 오디오 설비

명동의류공판장 옆 (舊 레스토랑 한마당)

전화 (3)7576

대표 전 병 구

납부금 수납방법 변경

현행 납부금을 경리과에서 현금 수납하므로써 현금 소지로 인한 도난·분실등의 우려가 있고 장시간 수납 창구에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을 공고함

아 래

1. 수납은행: 한일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자 지점
2. 수납대상: 서울캠퍼스 및 경주캠퍼스 학부 재학생
3. 납부방법:
 - ① 학교에서 각 학생에게 우송된 고지서로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한다
 - ② 장학금 수혜자는 학교에서 발행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고지서와 같이 지정 수납은행에 제출하여 고지서를 간곡수정하여 납부한다
 - ▲ 수납은행 - 서울캠퍼스: 한일은행 약수지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 경주캠퍼스: 한일은행 경주지점
 - ④ 납부고지서는 학교에서 배부한 전산처리된 것외에는 수납은행에서 수납처 않으므로 학과, 학년, 학반, 성명이 정확한가를 확인한후 수정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경리과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의문사항은 학교 경리과에 문의하기 바람.
4. 유의사항
 - ① 납부금 고지서는 매학기말 신청하는 수강 신청 자료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므로 수강신청이 착오없도록 함.
 - ② 전산 처리된 납부금 고지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이나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함.
 - ③ 납부금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수납 은행에서 수납처 않으므로 기간 연수함.

1986년 5월 일

총 무 처 장

수속기사

신세계속기학원 원장 노영민

특수교육을 위한 개정종목

● 1급·2급·3급

● 1급·2급·3급

● 1급·2급·3급

노영민 원장 직접지도

미국 "산타모니카"의 대학과 동급인 신세계속기학원

신세계속기학원

754-0349, 755-4368, 752-3330, 756-0666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예비군교육소집통보

1. 교육대상: 예비군 교육대상자

2. 교육기간: 1986년 10월 13일

3.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4. 기타사항: 예비군 교육대상자

獨文化學院

개강: 6월2일(월)

● 초·중·고급반

● 초·중·고급해석

● 속성반·유학시험 및 대학원시험 대비반

● 영미문화 Der Spiegel

● 독일인화화 (G. I. II)

● 독일 (5월개강)

● 독일어학개강

※ 전철통학권 발급

● 통지 3가 전철역과 가가네거리사이

267-3569, 266-0354

본사주최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 입상작



詩部 元



이창배 <고려대·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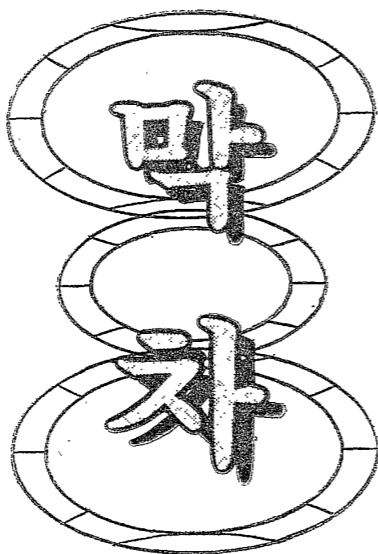
이창배 1963년 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문학콩쿠르에 1984년 처음 참가하여 '날씨'라는 시를 제출하였다. 이 시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詩部 元'에 선정되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과 학생이다.

소설부 우수 1석

진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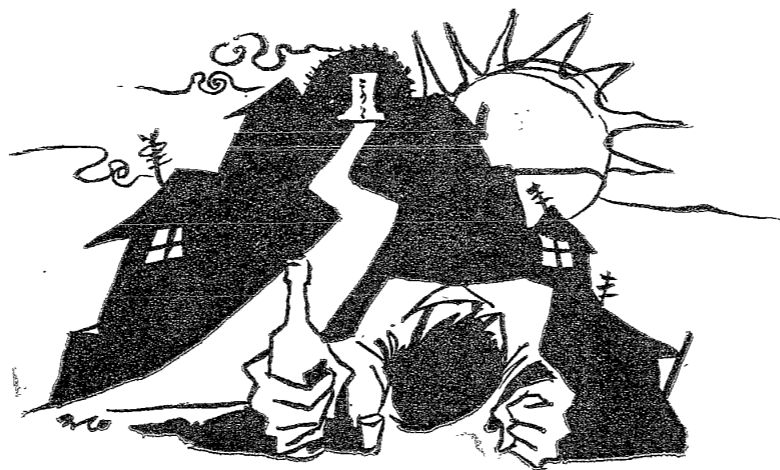
진혜리 1964년 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문학콩쿠르에 1984년 처음 참가하여 '막차'라는 소설을 제출하였다. 이 소설은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소설부 우수 1석'에 선정되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과 학생이다.



『막차』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소설부 우수 1석'에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진혜리 작가가 1984년 처음 발표한 작품이다. 내용은 서울에서 일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그녀가 매일 타는 막차 안에서 겪는 일과 감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진지 오래이고 가을

보이던 불빛마저 사라진 여기는 어디지...



백-, 어디선가 신호음이 들려오고 새벽 첫 기차가 역에 섰다. 나는 두손을 불끈 쥐었다 "돌아가자-, 그래! 막차는 떠난거야."

詩部 優秀 1席



어찌하면 우리를 눈빛을 나눌듯 나눌듯한 거리에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가을에 한층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서 내리듯 내리는 햇살로 내리는 이 계절 부끄러워 사라지는 불빛으로 빛난 서울, 허기진 가슴으로 품 품히는 초여름의 바람, 바람

김완식

<고려대·이화>

김완식 1964년 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문학콩쿠르에 1984년 처음 참가하여 '눈빛'이라는 시를 제출하였다. 이 시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詩部 優秀 1席'에 선정되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과 학생이다.

『막차』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소설부 우수 1석'에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진혜리 작가가 1984년 처음 발표한 작품이다. 내용은 서울에서 일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그녀가 매일 타는 막차 안에서 겪는 일과 감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막차』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소설부 우수 1석'에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진혜리 작가가 1984년 처음 발표한 작품이다. 내용은 서울에서 일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그녀가 매일 타는 막차 안에서 겪는 일과 감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막차』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소설부 우수 1석'에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진혜리 작가가 1984년 처음 발표한 작품이다. 내용은 서울에서 일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그녀가 매일 타는 막차 안에서 겪는 일과 감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막차』는 '제24회 전국남녀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선'에서 '소설부 우수 1석'에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진혜리 작가가 1984년 처음 발표한 작품이다. 내용은 서울에서 일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그녀가 매일 타는 막차 안에서 겪는 일과 감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大學英語

敎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 → 6月2日 (수시 접수)

李在玉 TOEFL
이카데이 TOEFL
時享 TOEFL
성문종합英語, Vocabulary 2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 ① ② ③, 英文文
就職 TOEFL,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大學院英語
TOEFL 600
英語實力基礎, Side by Side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美國語 Hearing GRE, GMAT
英語聽解 TOEIC
受驗日語(各種試驗對稱)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タイテ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語
사민어語, 中國語

院長: 文昌淳

총로27가 중문서적취원 734-2442
734-9226

時事英語學院

미국유학

● TOEFL 성적 500점 이상 혹은 유학자격 시험 합격자만이 유학 가능

- 본원은 미국 American Educational Placement Services와 협력 미국내의 88개 대학교(원)은 10일 이내에 I-20 Form 취득가능
- 국내에 있는 미국대학 입학 희망자 상담안내

※ 입학허가서-여권-비자까지 철저 수속 대행
※ 명문 M.B.A. 상담 환영

자료제공 및 VISA 특별상담

최고의 실적과 공신력을 자랑하는

에일유학원

YALE

용산구 갈월동 89-9, 근정극장 옆 세종빌딩 205호
☎ 717-9740(대) 9742, 7731, 7732

운전을 배웁시다

19년 전통·성실한 교육

-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정각 교육
- ② 택스 무료 운영
-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 ④ 외국(이민) 출국자 특별환영
-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2997 (388) 2684 1459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民族 知性 6월호

이 나라의 知性 이라면 누구나 본誌의 애독자가 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民族知性은 환원점으로써 오래오래 손을 떼지 못하는 책입니다. 흥명한 지성인일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비록 부피는 크지 않으나 내용이 너무나 充實한 敎養誌 思想誌이기 때문입니다.

6월호 特輯 韓國의 民主化

- I. 한국民主化와 정치발전길 10편
- II. 권위주의체제·南美的民主化過程 5편

紙上討論 韓國社會의 民主化 18인
時局贊反討論 大統領 直選制改憲

贊: 張乙柄 貝宗書 朴榮鍾 曠順範 朴明林
反: 柳根 李哲承 金重韓 鄭在東 高文昇

民主化를 위한 座談會

朴東緒 南載熙 金炯來 金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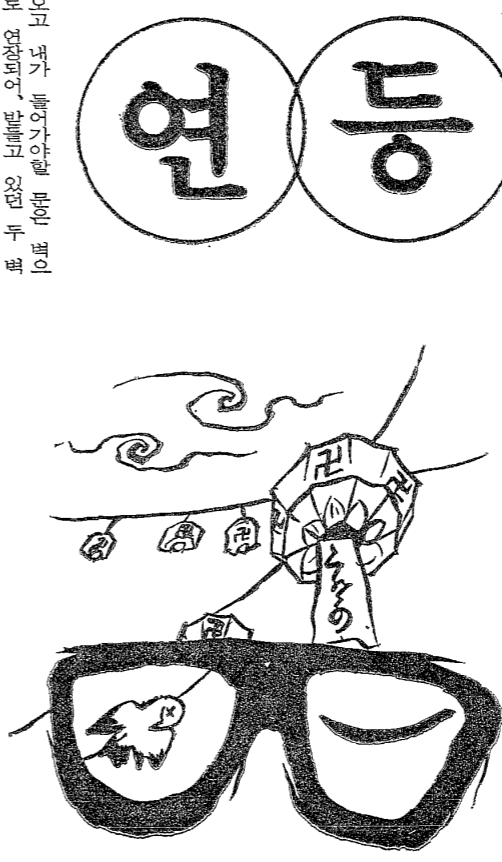
金鍾泌論 / 그 政治的 負債와 潛力

- 本誌는 單行本과 다름없습니다. 集裝에 꽂아 두고 거듭 읽어야 할 책입니다.
- 오늘의 韓國社會의 重要한 問題를 深層分析하고 處方을 제시합니다.
- 韓國問題를 照明하는데 東西古今의 깊은 智慧가 동원될 것입니다.
- 비평신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새 編輯技術을 도입했습니다.

제24회 全國男女高校文學공쿠르本選 입상작

隨筆部 優秀 一席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생은 마치 영화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인생은 영화와 달리 재촬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생은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이다. 그래서 인생은 더욱더 단정하고 단결한 것이어야 한다. 인생은 단정하고 단결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은 단정하고 단결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의 새는 날개가 없다. 더 이상 육지의 발을 디딜 생각도 없다. 나의 새에게는 다리가 없는 것이다. 나의 새는 날지 않고 걸지도 않고 다만 매일 열을 받는다. 안개가 끼어 날아다니는 새는 절절히 불행하다. 사그러들면서 나의 새는 그냥 매일 열을 받는다.

詩 部

- 詩 部 members: 徐廷柱, 金東俊, 金善鶴, 洪起三, 金長好, 金文洙, 韓龍煥, 金谷岳. Includes names and brief descriptions of thei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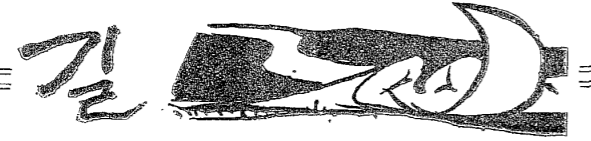
통계상담실 운영안내.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istical Consultation Room, including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時調部 壯元



강희찬 <부산공고 2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도, 사물도, 세상도이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꿈을 바라는 친구여! 하루를 시작하며, 기쁨의 꽃을 피우며, 웃음으로 활짝 웃으며, 슬픔으로 울며, 눈물로 씻어내고, 사랑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채우고.

隨筆部, 小說部. Includes names of authors like 李炯基, 金文洙, 韓龍煥, 金谷岳 and brief descriptions of thei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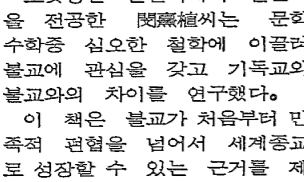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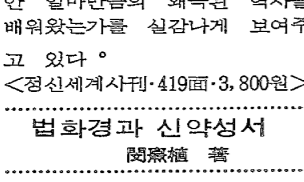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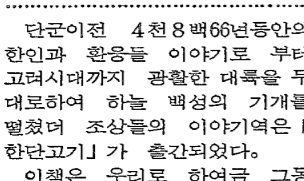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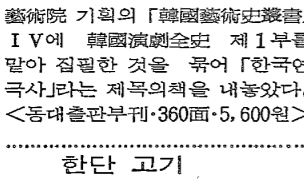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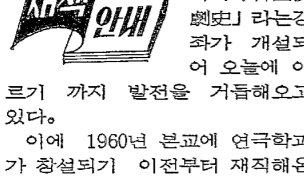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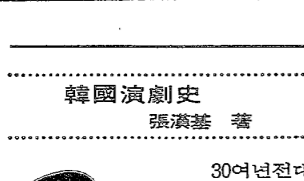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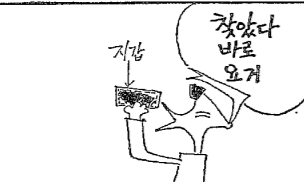
최고경영자.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rogram about top executives, featuring a list of names and a 'Top Secret!' tagline.

美國現代史.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American Modern History' by F. 프라이델 A. 브린클리, published by Daehakmunhwa.

할렘 USA.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rogram about Harlem, USA, featuring a large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the text '에그머니! 입소사!'.

소련의輿論.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Soviet Public Opinion' by 알렉스 인겔스 지음/李圭鍾 교수 옮김, published by Daehakmunhwa.

여로니 <12>



공포

요동(遼東)에는 돼지를 기른다. 요동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그로 인하여 생계를 삼기 때문에 돼지는 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또 그만한 흔한 것이 돼지였다.

요동의 돼지는 겹다. 요동의 돼지는 모두 겹다.

많은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얻어지는 요동 내에서의 높은 지위나 부를 얻기 위하여 요동사람들은 돼지 사육에 열심이다. 치효는 돼지를 기르는 이들에게서 으뜸이다.

요동에서의 모든 규율과 질서는 그의 지시대로 이행되는것이 관습이 되어있는 정도이다. 요동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 사육이란 돼지를 바탕으로 요동의 강력한 경제권을 쥐고있는 치효의 세력을 열무에 둔 추미적인 결합이 역력한 것이었다.

원추는 돼지에 흥미가 없다. 더우기 그는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않는다. 불췌없이 벗겨진 머리와 그 근원을 알수없는 길고 커다란 눈의 형세로 기다란 손을 늘어뜨리고있는 원추의 모습을 불췌없고 지저분함을 느낄 정도의 상태, 홀로 사색에 만족하며 살고있다. 비정상적인 신체의 모양만큼이나 원추의 성격 또한 결박에 가까웠다.

그는 다만 음중명하며,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저녁 노을이 져어 길로 돌아오는 정도의 피로를 즐기며 평범없이 사색만 할 뿐이다.

이러한 원추의 집에 어느날 이상한 돼지가 나타났다. 그 돼지

는 원추가 보던 검은 돼지와는 다르게 머리가 하얀 신기한 돼지였다.

그러나 원추는 그 신기하고 이상한 돼지에 흥미가 없었다. 곧 그 돼지는 원추의 집에 있게 되었다.

어느날 원추가 여행을 하고 돌아와보니 그 하얀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지 어느새 제법 키진 하얀 돼지 새끼들이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러한 소식은 곧

遼東家



치효에게 알려졌고 치효는 곧 원추를 불러 조상 대대로 검은돼지만을 길러오는 요동의 결사 불문율을 어진 것에 대하여 원추를 추궁하였다. 원추는 치효에게 사실의 진위를 모두 말하고 응사를 빌었으나 치효 또한 원추 등의 심경자로서 그의 목적이 모든 범의 창조자임을 전제 하여 끝내 파산 또는 미필적 고의의 사유를 들어 원추를 벌주었다.

그 벌은 원추를 잠깐간 집밖으로 몰아내지 못하게 가두어 두는 것이었다. 애초에 그것이 검은 하얀이든 돼지따위에게 흥미가 없던 원추에게, 그렇게 고나 하여간 하얀돼지가 모두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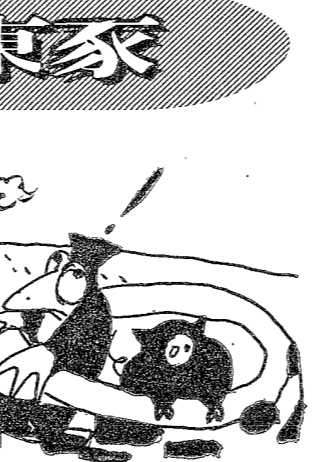
어졌으므로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오동나무 그늘에 앉아 맑은 샘물을 마시면서 안정하고 밤에는 요동의 산 그림자를 오는 달을 보며 사색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원추앞에 또 한 마리의 하얀 돼지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 돼지 역시 원추의 집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추는 매우 조심하였다.

치효에게 들키는 경우에, 저런 처럼 원추는 또 벌을 받을 것이 고 이 신기한 하얀 돼지도 없애 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숙고한 후에, 마침내 원추는 이 신기한 하얀 돼지를 모 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요동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낮과 이틀밤 이 지난후 하동(河東)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하동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하동의 돼지들을 살펴 본 원추는 곧 그곳의 돼지들의 거의 모두가 하얀 돼지임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하동에는 검은 돼지, 머리가 하얀돼지, 온몸 하얀 돼지들이 모두다 함께 건강하게 사육되고 있었다.

갑자기 원추는 하얀 돼지 한 마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

히든 검은 돼지는 돼지고 말고



고 자랑하고자 했던 자신이 매우 부끄러워졌다. 그는 애써서 들을 고 검은 돼지를 슬그머니 숨이주었다. 그는 한참이나 서서 수많은 하동 돼지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육을 보았다. 그리고 원추는 지금까지 보고 들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들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사색하기 위하여, 다시는 검은 돼지를 만나지 않는 요동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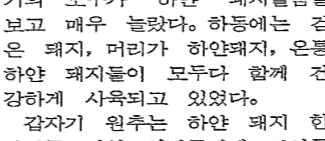
서신석 <법정대 법학과>

한우물의 사연

李丙疇의 사연

李丙疇의 사연

李丙疇의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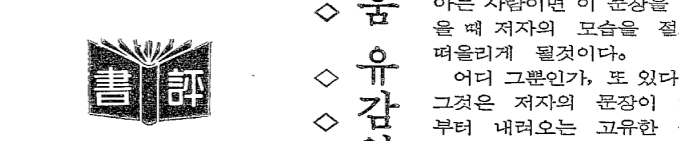
『시기가 슬기로운 삶의 양미라면 소설은 마당을 달린 허구로써 삶을 가늠해본 보기요...』 수상이나 수필은 삶의 보람을 담은 호젓한 실기라는 점에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 말한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은 자신의 수상에 대한 저자의 부절한 통찰의식이다. 미상을 이 책에 수록해있는 글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수상이 으레 갖추기 마련인 사색과 감찰을 우리에게 특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저자의 개성과 학문적 은유에 눈이 띄지 않게 곱사마 스타에서 빛이난 그 문장의 매력이다.

『문장은 곧 사람이다』라고 한 벼들의 말을 그것은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우리말의 아름다움 유감없이 발휘한 수상집

『시기가 슬기로운 삶의 양미라면 소설은 마당을 달린 허구로써 삶을 가늠해본 보기요...』 수상이나 수필은 삶의 보람을 담은 호젓한 실기라는 점에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 말한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은 자신의 수상에 대한 저자의 부절한 통찰의식이다. 미상을 이 책에 수록해있는 글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수상이 으레 갖추기 마련인 사색과 감찰을 우리에게 특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저자의 개성과 학문적 은유에 눈이 띄지 않게 곱사마 스타에서 빛이난 그 문장의 매력이다.

『문장은 곧 사람이다』라고 한 벼들의 말을 그것은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시기가 슬기로운 삶의 양미라면 소설은 마당을 달린 허구로써 삶을 가늠해본 보기요...』 수상이나 수필은 삶의 보람을 담은 호젓한 실기라는 점에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 말한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은 자신의 수상에 대한 저자의 부절한 통찰의식이다. 미상을 이 책에 수록해있는 글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수상이 으레 갖추기 마련인 사색과 감찰을 우리에게 특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저자의 개성과 학문적 은유에 눈이 띄지 않게 곱사마 스타에서 빛이난 그 문장의 매력이다.

『문장은 곧 사람이다』라고 한 벼들의 말을 그것은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동문과 재학생의 단합된 힘 "과시"

本校 개교80주년 기념 대형블로그극 "조선의꿈"

본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 의미를 기리고자 본교는 11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11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까지 3일간 '조선의꿈'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본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 의미를 기리고자 본교는 11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11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까지 3일간 '조선의꿈'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6월18일 문예회관 대극장) 이 공연작품은 출연 이광수의 「꿈」과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선신설 이야기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생노병사의 괴로움과열반에 드는正道, 해탈사상을 중심 주제로 극화시켰다.

이작품은 극단 「신협」 대표 김흥우(연경과동문회장) 동문이 각색을 하고 동문 6기인 김효경(서

인도무용·바라춤·범패등이 어우러져 극적 이미지 연출

리나라 연극·영화와 방송계에 중견으로 활약중인 본교출신의 연예인들은 현재 5백여명이 넘는 80인원이라는 긴 연극과 함께 주춧돌 성장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이 공연은 본교 동문과 재학생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블로그극이다.

霸氣

「아시아와 함께 전진하자」
아시아경매대회 '86.9.20-10.5

인류의 역사는 패기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적극적(積極的)인 사람, 진취적(進取的)인 사람, 빈틈없고 야무지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패기있는 사람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萬有引力)의 법칙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어느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과나무 밑에 앉았다가 우연히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째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유명한 만유인력(萬有引力)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쳐 버렸던 사실에서도 깊은 의문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찾아 자기의 신념을 달성한 뉴턴이야말로 적극적사고(積極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발명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는 "세차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라는 오랜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날개 모양을 연구하고 실험을 거듭하다가 1903년 12월 17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비행기(플라이어호)를 타고 12초 동안 하늘을 날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주 항공 과학의 문을 열게된 라이트형제의 세계 최초 비행성공은 목표에 도전하여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행동(進取的行動)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金正浩)는 19세기 중엽(조선 순조시대)에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3000리 장안을 30여년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정밀한 지도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같은 업적은 과학적으로 모든 일을 분석하고 오랜기간 치밀한 계획 아래 빈틈없고 야무지게 일처리(處理)를 한 그의 패기(霸氣)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패기를 함께 갖춘 인재의 양성

패기는 사고방식, 행동양식, 인처리 방식 등 세가지로 나누어 훈련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사고(積極的)의 사고
적극적 사고는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 진취적행동(進取的)의 행동
진취적 행동은 진취적인 행동입니다. 진취적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패기있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 빈틈없고 야무진 일 처리
세계, 일처리는 빈틈없고 야무지게 해야 합니다. 일단 빈틈없고 야무지게 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패기있는 사람이면 패기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패기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역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SK 鮮京그룹

(주)선경·선경합성·선경화학·선경메그네틱·웨라론워커빌·선경건설·선산섬유·선경사이클·(주)유강·흥국상사·유강해운